

서지기술방식의 국제적표준화가 시급하다

현대를 일컬어 정보화시대 또는 국제화시대(세계화시대)라고 한다. 그런데 국제화나 정보화는 정보전달수단의 국제적표준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준화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의 국제교류가 으뜸이었기 때문에 상품의 규격을 위해서 우선 길이나 무게 등의 단위를 표준화하기 시작하였으나 현대에는 이것이 모든 분야에 확대되어 표준화에 관련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다.

정보자료분야에 있어서도 책이나, 정기간행물이나, 색인이나, 초록의 작성법이나,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모든 정보자료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관련된 *ISO Standards Handbook 1: Information transfer*(Second edition, 1982)에 수록된 Standard의 종류가 무려 57종이나 되고, 부피로는 52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러한 정보자료의 표준화기준 중에서 여기에서는 편목법(편목법에 대해서는 ISO Standards는 없지만 별도로 발행된 ISBD(G)와 이에 수반되는 각국의 편목규칙과 MARC가 이러한 Standard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과 색인작성법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화가 시도된 것은 목록에 있어서 서지기술법의 표준화로서 IFLA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서지기술법](ISBD)이 그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ISBD의 목적은 書誌記述에 있어서 기술사항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수락될 수 있는 골자를 정하는데 있고, 궁극적으로는 출판물들의 효과적인 국제적 유통을 위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의도된 것이다.

그리하여 ISBD에 따라 AACR이 AACR2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USMARC를 개발하는 한편 이를 더욱 유용하게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국제적표준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USMARC는 영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적 유통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 UNIMARC가 개발되었고, 이어서 세계 각국이 편목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각국의 MARC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편목규칙이나 MARC는 단순히 목록을 자동화한다는 의미보다도 목록의 서지기술방식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자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서 국가서지기관이 표준화된 서지기술방식에 따라 컴퓨터로 목록을 작성해서 자국의 모든 도서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에 보급하는 동시에 외국에 대해서도 서지정보를 원활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국제적 학술교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조에 따라 우리 나라도 1970년대 중반부터 KORMARC를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에 대한 기술규칙과 그에 대한 MARC가 개발되었으나 아직은 미완성인 상태이며 공공도서관은 모두 KORMARC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었거나 아니면 곧 연결될 것이다. 그러나 전문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은 심지어 국립서울대학교도서관에서 마저도 각각 자체개발한 MARC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상업용 패키지를 구매했거나, 용역개발 등의 방식으로 목록을 자동화하고 있어서 이들의 자동화목록은 모두 하나의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인력과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개발된 KORMARC가 국제적인 표준화는 고사하고, 국내에서마저도 표준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KORMARC가 일원화되지 못한 원인은 그 개발이 너무 지연되었고, 이미 개발된 KORMARC자체도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서로 도와서 통일된 KORMARC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편 색인작성법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Standard가 있는데(현재 ISO 999-1975-Documentation-Index of a publication과 ISO 690-1987 Second edition-Documentation-Bibliographical reference-Content, form and structure가 색인 작성법에 대한 Standard가 된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내에서도 여러 조직체나 개인이 문헌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PC통신업체에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학술지 등에 수록된 논문이나 기사를 검색하기 용이하도록 컴퓨터로 작성한 색인의 집적체이다. 그런데 PC통신을 통해서 검색된 기술내용을 검토해보면 그 기술 방식이 각기 다른 것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표준화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앞으로 국제적인 학술교류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더구나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한 문헌정보학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 작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앞으로 이 분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펼쳐질 것이 명백하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산업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 분야와 도서관계에서는 다른 분야의 비전공자들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신기한 소산물로 인식하고 이들을 이용하는 데만 안주하고 있으니 난센스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문헌정보학분야와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 필 모(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